

# “한국-스위스 조 2위 다룰것”

## ■ 영국 축구 칼럼니스트 롭 휴스 전망

### “토고는 강팀 아니다”



축구의 본고장 영국에서 활동 중인 축구 칼럼니스트 롭 휴스(영국)는 19일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최 ‘축구와 국제평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G조는 매우 어려운 조 가운데 하나이지만 프랑스는 거의 확정적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으며 나머지 한 팀은 한국이나 스위스 둘 중 하나”라며 “토고는 다른 아프리카 팀들처럼 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휴스는 스위스에 대해 “독일 축구와 스타일이 매우 비슷해 예측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유럽 팀들도 이미 한국 축구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한국도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휴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트넘 핫스퍼)에 대해 묻자 “최근 맨유-토트넘 경기를 봤는데 박지성이 이영표의 볼을 빼앗아 루니에게 패스한 장면은 정말 재밌었다(funny)”며 “프리미어리그는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데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들이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떠날 때 히딩크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다”며 “이영표는 진출 초기부터 주전 자리를 꿰차고 박지성은 최근 두 달 간 매우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 “인종차별 언동 팀 승점 3점 깎겠다”

## 블래터 FIFA 회장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부터 선수나 팀 스태프, 관중이 특정 팀 또는 선수에 대해 인종차별적 언동을 했을 경우 해당 팀의 승점을 3점 깎는 ‘신(新)인종차별 금지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19일(한국시간) 영국 스카이TV와 인터뷰에서 “새 규정은 이번 독일월드컵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인종차별에 대한 징후가 보이면 해당 팀의 승점

을 3점 깎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인종차별 금지규정은 지난 4일 FIFA에서 통과돼 각국 축구협회와 연맹에 통보된 상태다. 새 규정에 따르면 FIF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인종차별적 행위가 적발되면 당 팀의 승점을 3점 깎고, 두 번째 같은 사례가 재연되면 승점 6점을 빼기로 했다. 블래터 회장은 “독일월드컵 개막에 앞서 열리는 FIFA 총회에서 새로운 인종차별 규정을 이번 독일월드컵부터 적용시킬지 여부를 확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셀로나,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승

FC바르셀로나의 호너우디뉴가 19일 오전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5~200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AC밀라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프리킥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루도비치 지울리의 후반 12분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박지성 7번째 도움 공식기록엔 미등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파워엔진’ 박지성(25)이 지난 17일 이영표(29·토트넘 핫스퍼)와 맞대결에서 올린 시즌 7번째 도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공식 통계인 ‘액티브 스태츠(Activ Stats)’에는 잡히지 않았다. 반면 지난 2월5일 풀햄전에서 기록한 정규리그 첫 골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관공단이 자책골로 판정했으나 공식 기록에는 여전히 박지성의 골로 인정돼 있다. 따라서 박지성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31경기에 출전해 1천940분을 소화하고 2골과 6어시스트를 올린 것으로 집계돼 있다. 박지성은 토트넘전에서 전반 36분 이영표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외곽에서 물고 가던 볼을 빼앗아 웨인 루니에게 연결해 결승골을 배달했다. BBC 인터넛은 경기 중 문자중계에서 처음에는 박지성의 도움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전반 종료 무렵 ‘고침’ 공지를 통해 어시스트를 인정했다.

## 이창봉(상무고) 평영 200m ‘금’

전남중 황준호·화정 남초 김지현 자유형 100m·배영 50m 각각 우승 동아수영대회

이창봉(상무고 2)이 제7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창봉은 19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남고 평영 200m에서 2분22초66으로 울산 효정고 이동혁을 5초 63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남중부에서는 황준호(전남중 3)가 자유형

100m에서 54초42를 기록하며 1위로 끝났으며 김지현(화정 남초 6)은 여초 배영 50m에서 31초 83으로 서울 장동초 권채린을 제치고 금빛물살을 갈랐다. 또한 20일에는 이창봉이 남고 평영 100m, 황준호가 남중부 자유형 200m에서 각각 2관왕 도전에 나서고, 21일에는 김지현이 여초 배영 100m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임효택 광주시수영연맹 전무이사는 “이창봉, 황준호, 김지현 등 세 선수가 모두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미 금메달을 따내면서 상생세를 보이고 있어 2관왕 등극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서재응 23일 첫승 도전

‘컨트롤 아티스트’ 서재응(29·LA 다저스)이 시즌 첫 승에 세 번째 도전한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나모스 홈페이는 19일(이하 한국시간) 각각 예상투수와 보도자료를 ‘게임 노

트’를 통해 서재응이 23일 오전 11시10분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애리조나전에 선발 등판한다고 발표했다. 서재응의 맞대결 상대는 1승(방어율 5.09)을 올린 우원투수 미겔 바티스타다. 지난 17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선발 등판한 서재응은 6이닝 동안 2실점의 퀄리티스타트로 그 래디 리를 감독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

## 장원배 중·고 정구대회 내일 동신고에서 개막

제 11회 장원배 전국 남녀 중·고 정구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광주 동신고 정구장에서 펼쳐진다. 제 14회 한·중·일 주니어 경기대회와 결연한 한국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남중부 16개팀, 여중부 11개팀, 남고부 17개팀, 여고부 7개팀 등 모두 51개팀이 참가하며 경기종목은 남녀 중·고등부 단체전 및 개인전(복식, 단식)이다. 광주에서는 광주 동신고와 동신고, 금호중, 신광중 등 4개교가, 전남은 순천배산고, 순천 삼산중, 순천여중, 광양곡곡중, 장흥대덕중, 고흥점암중앙중 등 6개교가 우승컵을 노린다. 대진표 추첨은 20일 오후 3시 30분 광주동신고 정구장 회의실에서 이뤄진다. 한편 지난 대회에서는 남중부는 순천 삼산중이, 여중부는 안성중이, 남고부는 광주 동신고가, 여고부는 충북여고가 우승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20일(목)
-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볼티모어>(07:55-Xports)
  - ▲제42회 춘계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 결승전(11:00-KBS SKY SPORTS)
  - ▲제4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12:50-KBS SKY SPORTS)
  - ▲전국 휠체어농구 결승전(13:00-KBS 1)
  - ▲제11회 무학기 전국 고교축구 결승전(14:00-MBC ESPN)
  - ▲동아수영대회(14:00-KBS2)
  - ▲프로야구<삼성-한화>(17:50-SBS스포츠), <KIA-롯데>(18:30-MBC ESPN), <LG-SK>(18:00-KBS SKY SPORTS)
- 21일(금)
- ▲PGA투어 쉐 휴스턴 오픈 1R(05:00-SBS스포츠)

**당선확신!!**

신기발명, 선거전략, 원고작성, 유세방법, TV출연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문의: 02-6326-6523-4 / 017-603-6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컴퓨터, 인터넷, 복사기, 팩스, 전화, 에어컨, 조명, 보안, 주차, 24시간 관리

연우개발 행정관리사무소 010-471-3111 / 010-471-3112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음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061-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1위경동보일러 우수회사 삼우상사

061-278-4242 / 272-6262 / 624-6262